



HOLY MISSION STORY 거룩한 사명



Holy Mission Story • 3400 W. 6th St. #202 Los Angeles, CA 90020 • T. (213)559-7500 • info@holymstory.com

창간호 | 2024년 11월 10일

www.holymstory.com

생활선교·경제공동체·IT선교

<발간사>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선교를 대하는 진정한 교회인 성도들의 자세이다. 신앙과 사명, 그 후 하나님의 약속인 상급은 심판에서의 최상은 생명의 열매, 곧 선교이다.

선교가 개념에서는 지역서 문화로의 전이를 겪고 있는 요즘이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미개척지가 있음을 일찍이 발견하고 영성 선교에 노력해온 터에 새롭게 온 정성을 다해야 하는 선교개념은 차세대 선교, 곧 다음 세대를 통한 생명론적 선교라 하겠다.

선교의 방향 또는 형태도 'go to them'에서 'them to us'로, 그리고 'them to them'으로 변화되어 가듯이 지역선교 내에서도 문화와 교육으로 크리스천이 되는 목표를 넘어, 크리스천 리더와 일꾼을 길러내는, 차세대 선교의 사명이 새롭게 요구되는 오늘이다.

이 일을 '거룩한선교이야기'

로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스토리 텔러 성령님과 더불어...

전통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다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거룩함이란 구별됨에서 비롯된다. 이 구별됨은 차별이 아닌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통전적 구별이며,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안에서의 구별이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이거나 죄와 상관없는 삶을 넘어선, 속됨을 넘어선 성스러움과 동시에 선을 추구함을 포함하는 거룩함이다.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속됨을 넘어선,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주는 오늘날, 세상을 치유하



거룩한선교이야기 대표
김재울 목사

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복음으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금, 복음으로 들려주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의 회복을 꿈꾸는 이야기를 '거룩한선교이야기'로 모든 이들과 함께 하고 듣고 싶다.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을 교육하는 프로젝트와 신용운동 프로젝트, 그리고 자동차 기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생활선교의 장을 여는 언론사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한다.

사 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7)

사 호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선언문

진리 수호의 사명을 다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다.
선한 추구의 사명을 다한다.
교회 세움의 사명을 다한다.
차세대 선교 사명을 다한다.

차 례

종합 뉴스	P.1
복음 / 설교	P.2
선교 / 교회	P.3
영성 / 간증	P.4
목회 / 상담	P.5
사설 / 칼럼	P.6
자연 / 환경	P.7
정치 / 경제	P.8
사회 / 교육	P.9
문화 / 예술	P.10
생활 / 건강	P.11
신용사회	P.12
도산신보	P.13

Emmanuel University
Academic Program
Master of Divinity (M.Div) - 목회학 석사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상담학 석사
Docto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상담학 박사
전학 및 입학 상담, SEVIS I-20
www.emmanueluniversity.org
3400 W. 6th St. #200, Los Angeles, CA 90020
213-674-7850
emmanuelu314@gmail.com

Go to 1 'Galile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Galilee School of Theology
갈릴리 신학 대학원
Master of Divinity (M.Div) - 목회학 석사
Master of Sacred Theology (STM) - 신학석사
Doctor of Sacred Theology (STD) - 신학박사
신입생 입학 및 전학 가능, SEVIS (I-20) 인가
www.gstia.com/gstlaca@gmail.com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255 S. Hill St. #401, Los Angeles, CA 90012

College Prep Portfolio & Consulting
INART
www.inarteducation.com
Main Office 323-889-9900
Main Branch 213-808-9481
La Crescenta 818-488-4385
The Source OC 213-364-6640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거룩한 선교이야기'의 창립을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진리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헌신과 사명의 본질입니다. 거룩한 선교이야기는 이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다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선교이야기의 사명 선언문에서 밝히신 대로, 진리 수호의 사명을 다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며, 선함 추구의 사명, 교회 세움의 사명 그리고 차세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바로 세우고,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터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

는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교이야기를 통해 이루실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복음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선함 추구와 교회 세움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지역 사회가 복음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차세대 선교를 위한 헌신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교이야기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진건호 목사>

섬김과 나눔

'거룩한 선교이야기' 창립과 '거룩한 사명'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작으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홈리스 사역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예수사랑세계선교회는 복음전파와 빈민구제사역을 목표로 1999년 4월 17일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LA 다운타운의 노숙자들에게 급식과 예배를 제공하므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훈 선교 단체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숙자 사역에 25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주님의 공급하심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홈리스 형제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예수사랑세계선교회는 주중 홈리스 급식과 매년 12월 초 다운타운 홈리스들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2005-

2024, 21회)는 힘든 삶에 지친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추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기 일환으로 사랑의 담요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17,500여 점 나눔)

COVID 19 팬데믹 델타바이러스,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나눔의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커뮤니티와 타 커뮤니티 그리고 사업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 출신의 샌티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저희 선교회 사역 현장에서 10여 년을 설교자로 봉사하셨습니다. 한국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은 제19회 나눔행사(2022년 12월 6일)에 참석하여 홈리스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할리우드와 라스베가스에서 활동하던 Sylvia 가수는 자비량으로 라스베가스와 LA를 왕래하면서 홈리스 형제들을 12년간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사랑세계선교회
<대표 조병국 목사>



축
창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진건호 목사
310-706-7721



축
창간
예수사랑세계선교회
회장 조병국 목사
213-445-2488

로잔대회 - 복음주의 세계선교운동

2024년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200여 국가와 지역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다국적 자원봉사자들과 중보기도 팀의 헌신이 뒷받침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국에서 치러진 전 세계적 선교대회를 알기 쉽게 간단히 소개한다.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 전통을 가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는데 하나 되기 위하여 존 스토틀와 빌리 그래함에 의해 시작된 대표적인 복음주의 세계선교운동이다.

스위스에서 1974년에 열린 제1차 로잔대회는 "온 땅이여,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으며, 교회가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로잔 언약'이라는 역사적인 선언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세계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세계교회가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로잔대회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를 선포하자;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복음을 가지고 모든 나라에게"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마닐라 선언'은 다양한 교회와 신학, 민족과 종족을 인정하면서도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주의 신앙을 표방하였다.

제3차 로잔대회는 "온 세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라"는 제목으로 2010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었으며, 성경적 확산과 그리스도인의 행동요령을 담은 '케이프타운 서약'을 발표하였다. 특징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선교에 온라인, 소셜미디어, 위성방송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선교의 새 창을 열었다.

올해 인천에서 열린 제4차 대회에서 발표한 '서울선언문'은 복음, 성경, 교회, 인간, 제자도, 열방의 가족, 기술'이라는 7가지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으로는 복음주의 성

경해석, 교회의 사회적 책임, 디지털 시대의 사역'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써 그 진실성과 권위, 그리고 신앙의 유일하고도 정확무오한 척도임을 믿는 신앙을 재확인함으로써 '동성애는 죄'라고 명료하게 천명하였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복음 전도의 한 축임을 확인하고 세상의 갈등과 분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화해와 평화 선언은 근본주의의 폐쇄성을 피하고 인본주의를 견제하며 인류의 청지기 사명을 재인식 하는 선교적 의미를 갖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로잔 운동은 "온 교회가 온

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구호로 축약되며, "복음-교회-세상"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전개되었다. 제2차 마닐라 대회는 근본주의적 은사주의에 치우치고,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는 자유주의적 신복음주의로 흘렀다면, 제4차 서울-인천 대회는 복음주의 선교 로잔 정신으로 복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의 신앙과 교단의 교리에 다소 약간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신앙고백이 같은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며 세계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제4차 로잔대회


창간
하튼교회
담임목사 진 건 호
310-706-7721
4500 W. El Regumdo, Hawthine


창간
나성소망교회
담임목사 김 재 울
213-550-7377
255 S. Hill St. #401 LA, CA 90012


창간
나눔과섬김의교회
담임목사 엘리야 김
213-272-6031
439 S Western Ave #100, LA, CA 90020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사업하는 영국인 귀족이 살고 있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 나가고자 노력했다. 주일이 되면 빠짐없이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여 신앙 안에서 바른 인격형성을 획득하도록 노력하였다.

사업은 번창했고 가정은 평안했으며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 주었다. 어느 날 영국 신사는 가정의 잡다한 일을 맡길 소년 한 명을 하우스보이로 채용했다. 소년은 조용한 성격을 가진 자로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영국인 귀족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내가 이 집에서 일한 지 꼭 석 달째 되는 날입니다. 내 마음속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를 잘 돌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제 막 정이 들어 한 가족처럼 지내려는데 그만 떠나겠다는 말에 영국인 귀족은 너무나 아쉬웠다. 그래서 그는 소년에게 월급을 더 올려줄 테니 떠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그러자 소년은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돈 때문에 여기를 떠나

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 한 가지 결정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기독교를 믿어야 할지, 이슬람교를 믿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믿는 집에서 3개월 일해 보았으니, 다음은 이슬람교를 믿는 집에 가서 3개월 일해 보고 난 뒤에 내가 믿을 종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찔함을 느꼈다. 누군가 나의 행위를 보고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정한 믿음은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삶에서 행위로 드러내야 한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다른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서신의 하나인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득의 사상에 기초하여 구원받은 자의 행위, 곧 믿음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서신이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 범람하는 이 세대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훌륭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신앙고백으로 구원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들이다.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고백과 생활이 일치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앙고백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다.

영국 귀족의 집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했던 그 소년이 이슬람교가 아닌 기독교 가정인 영국 귀족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당신은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보여 주었노라고 인정하고 한 가족처럼 그 가정에서 지냈으면 하는 소망이다.

약 2: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홍성관 목사〉

가을에는

송인 시인

가을에는 생각하게 하소서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답던 단풍이
왜 가까이에서 보면 서글픈지를
아름다운 새와 노래는 모두 도망가고
왜 다람쥐들만 설치고 다니는지를
여름 숲속으로는 보이지 않던 길이
왜 찬바람을 맞으면서 흰치 속까지 보이는지를

가을에는 감사하게 하소서
산도 허리를 굽히고
바위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계절
과일 바구니 품에 안고 감사 기도하는 나무들
여름에는 팔이 짙던 햇별이
길어진 팔로 나무뿌리까지 감싸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풍성한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어주게 하소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잔치를 배설하고
그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하게 하소서

*불의의 재물 - 누가복음 16:9

기독교인의 감소에 따른 교회 출석률 하락과 대책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전체의 기독교인 비율은 물론 미국 내 한인들의 기독교인 숫자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낮아지고, 교회 출석률도 떨어지고 있어 교계에서는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기독교를 선호하지만,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갤럽(Gallup)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5%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68%가 기독교이고 그중 33%는 개신교, 22%는 카톨릭, 13%는 다른 기독교 또는 명목만 기독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조사 및 분석 전문기관인 퓨(Pew) 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한

인들의 경우에는 한인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명이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한인 중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인 비율이 59%에 달했다. 한인 응답자 중 개신교 신자 비율이 48%, 천주교 신자 비율은 11%였다. 불교는 3%를 차지했고,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34%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 10여년간 미주 한인 중 기독교 신자 비율은 12%포인트 낮아졌다. 퓨리서치의 2012년 보고서에서 한인 기독교인 비율은 71%에 달했으나 이번엔 59%로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또한, 한인들의 무종교 비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교인의 감소 원인은 첫째, 목회자들의 정치

비리와 사회적 이미지 실추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다. 이는 목회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대중으로 하여금 교회 집단을 기독교 정신인 사랑과 섬김보다는 세상 권력을 탐하는 집단으로 보게 한 것이다.

둘째,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가 산업의 활성화이다. 가난할 때는 교회 출석률이 높았으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오락, 웰빙, 쾌락을 추구하는 업소들을 찾으면서 가치관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이다. 교인들이 고령화되고 젊은 세대들이 충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은 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고 있다. 또한,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교계 내의 연령층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 현상으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는 '탈종교화' 이념이 확산 되어 무종교인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

도 또 하나의 기독교인감소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회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의 회복'이다.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정신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이미지를 새롭게 하여, 교회가 기복적 번영 신학이나 천민자본주의와의 야합을 배척해야 한다. 교회는 오로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영성"을 바로 세우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오는 정성"을 기울여야 기독교인 감소라는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창간

UGN복음방송

www.iugn.net

4055 Wilshire Blvd. #352
Los Angeles, CA 90010
213-700-2891



창간

Good Morning
USA NEWS

goodmorningusanews.com

7035 Orangethorpe Ave. #H
Buena Park, CA 90521
714-745-2838



창간

명문대 입시전문
아이비칼리지어드미션

ivycollegeadmission.com

Joyce Kim
213-503-0315

오만과 착각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이며, 교회는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이다. 교회 역사는 이 땅 위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희생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나 노력과는 너무도 상반된 것이기에 가슴이 아프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다.

세계는 다시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수정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냉전이 종식되고 근대 이후 잠깐 평화 시대를 누리는 듯하였으나 다시 전쟁의 시대로 회귀한 듯하다.

러시아의 푸틴은 서방으로부터 받은 침략에 대한 역사적 사죄를 들며 북대서양조약 기구의 확장이 자국의 안보에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민간인 납치에 대응하여 가자지구를 초토화하고 이란과 시아파 이슬람 무장세력인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을 상대로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도 내전 상태와 다름 없다.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가세하여 폭력적으로 사회를 양분화 시키

고 있다. 기독교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이들이 군산복합체와 총기 소지를 지지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선거 열기는 도를 넘어 진영 간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극심한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가 한강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한국인 두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한글이 또 하나의 한류 콘텐츠로 부상한 가운데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인의 높은 지성미를 뽐낸 쾌거이다. 그러나 작품의 배경이 5.18 광주와 4.3 제주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노벨상 수상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가슴 아프다. 국가폭력에 항거하여 개인의 윤리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역사적 사건이 또다시 진영논리의 폭력으로 영웅마저 처참하게 하는 것을 목도한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 폭력과 전쟁의 중심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있다. 마치 현대판 바리세인들을 보는 것 같아 슬프다. 기독교가 평화 대신 분쟁과 전쟁을 외친다면 무엇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독교는 65만 명을 넘어선 미국 내 노숙자들에게 관심은 있는가?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천민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신봉하는 것이, 마치 복음

주의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않은지 묻고 싶다. 보수를 표방하는 기독교인이 진보적 성향의 기독교인에게 빨갱이라고 서슴없이 내뱉는 오만은 어떤 자신감인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더 늦기 전에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 차분히 세상을 관조해야 할 때이다. 인간의 환경파괴가 가져온 기후변화도 '바이오 필리

아' 이론을 적용하여 자연과의 공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교회는 '아가페'와 함께 '필리아'가 필요하다. 차이를 넘어 공생으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불편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형제자매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장 여호수아 정)

늦깎이 삶의 끝자락에 걸터앉아

LA 다운타운에서 홈리스를 먹이고 입힌 나주옥 목사가 “늦깎이 삶의 끝자락에 걸터앉아”라는 자서전을 내 놓았다. 지난 10월 27일 갈보리민음교회 예배실에서 가진 출판기념식은 울타리선교회 이사회가 주최하였다.

코니 김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강진웅 목사의 기도와 장병희 기자의 작가 사회로 시작하였다. 김상우 목사와 이창민 목사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고, 사이사이에 나승렬 목사, 그리에스 장, 안선신 목사와 나주옥 목사의 찬양이 곁들여졌으며 홍춘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나주옥 목사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M.Div)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D.Min)에서 수학하였으며, 1999년 울타리선교회를 창립하고 홈리스 사역을 시작하였다.



미국의 홈리스는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자발적인 홈리스와 비자발적인 홈리스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는 약물중독과 알콜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한 경우도 많다.

그들에게 라면과 도너츠를 먹이고 추우면 점퍼를 입히며 함께 예배하는 사역을 25년 동안 지속해온 그에게 “LA 홈리스의 어머니, 만나 나눔 도우미”라는 칭호가 붙었다.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최근 지구촌은 기후위기로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금은 이런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각층 특히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는 인간의 활동 특히, 온실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석탄, 가스,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증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데, 이로 인해 폭염, 가뭄, 홍수, 허리케인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상황을 초래하고 농지는 사막으로 변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현상들은 그 규모, 빈도 및 피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는 세계 각국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상태인 식량 안보를 어렵혀서 국제 식량 공급망이 교란되고 취약국가들의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질병을 퍼뜨리며 생태계를 파괴하여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앗아가

는 위기 또한 야기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특징으로, 기후 변화의 주범은 탄소를 배출하는 선진국 기업과 시민들, 선진국의 기업들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는 거의 대부분 적도 근방의 개발도상국 시민, 그 중에서 저소득층 등이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온 상승으로 에어컨을 제조하는 선진국의 회사들이 대량 판매를 하고, 아이스크림 업체가 큰 돈을 번다. 사막화는 해수담수화 기술을 지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시장이 생기고, 해수면 상승조차 제방과 방파제 기술을 가진 나라들의 건설사들이 돈을 번다.

기후변화를 초래한 데에 대한 책임이 큰 선진국들보다도 자연재해에 취약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상이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계속되는 갈등과 재난은 국내외에서 더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빈곤에 처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식량 불안정



▲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가 이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렌더링하는 나사 3d 그림

에 직면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지구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을 돌보고 번성시켜야 할 의무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구를 돌보는 임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훼손하여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더욱 악화시켜 왔다는 것은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하고 믿음직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자원을 남용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한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일신하여 일상생활에서 우선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쓰레기를 양산하는 일을 줄이는 일부터 해보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재앙을 당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구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진정한 선교가 아니겠는가?

거대한 기후 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책무이다.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와 실천이 요구되는 때이다.

축 창간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서사라 목사

213-574-940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 2024학년도 가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학생수시모집**

실시간 인터넷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혹은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사과정 (B.Th) 128 학점 -목회학사과정 (M.Div) 96 학점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학위과정)*
------------------	--	--

상담전화 | 213-272-6031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A CA 90020 | TEL:213-272-6031

복음주의자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미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왔던 기독교의 복음주의자들은 이번 47대 대선에서도 공화당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 중 81%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직전 2020년 대선에서도 76~81%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현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와 보수적 신복음주의 그룹에 속한 자들로 교회의 사회 참여에 소극적이며 반복음적 사회문제에 저항해왔다. 최근 그들의 정치 참여는 사회 참여의 차원이 아니고 교회의 세속화를 방호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보수적인 백인 복음주의자들 중 잭슨 라이머라는 목사는 심지어 “트럼프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자 신이 보낸 신인물”이라고 극찬하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을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로 여기며 정치, 사회, 교육 정책 등에 기독교적 교리와 원칙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믿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의 광적인 트럼프 지지를 ‘트럼프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사회악인 낙태, 동성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에서 미국 국민을 구제할 수 있

는 사람은 오로지 트럼프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불평등과 중산층의 좌절감,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트럼프를 그들의 영웅으로 받들고 싶어 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실제로 성추문 입학음 뇌물 사건에서 34개의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중범죄인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흠결이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기독교인들인 복음주의자들은 관용적인 태도로 트럼프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밝게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은 보수적인 대법관 지명으로 낙태법을 폐지하기를 원하고, 총기 사용을 지지, 이스라엘을 향한 정치적 지원, 미국 민족주의, 경제 회복 약속, 복음주의 공동체를 위한 정책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트럼프의 불법적인 일련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운명을 트럼프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작용해왔는지 살펴보자. 기독교 신앙은 부당한 권위에 맞서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역사에서 기독교는 노예제 폐지, 민권 운동, 반전 평화운동, 빈곤 구제 운동, 이민자와 난민보호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것이 역사 속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재집권 시에 낙태와 동성애 반대는 물론,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가 강화되며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글로벌 경제 안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에 타격을 주고,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가 확대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화석 연료 사용을 늘리고, 이민자들을 쫓아내는 등 민주화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수적인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그들의 금과옥조와 같은 신앙적 교리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적절한 태도인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며 역사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뮤지컬 “도산” 공연 소식

뮤지컬 ‘도산’이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월서 이벨 극장(Wilshire Ebell Theater)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작품은 지난 2019년 11월 9일 초연되었고 3.1 만세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CA 주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을 기념해 제작됐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을 잃은 이민자로 살아가던 미주 한인에게 한민족으로서 긍지와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에는 팡페라 가수 테너 최원현(도산 안창호)과 팬텀싱어1의 준우승팀 인기 현상의 멤버 백인태 (도산 안창호), 유슬기(백범 김구) 등이 출연한다.

티켓은 온라인 (seasuntag.com/2024-tickets) 과 전화 424-438-0363로 구입할 수 있으며 10명 이상 단체 구입시 30% 할인된다.



▲ 미국대선

인공지능 시대의 설교와 교육

빅데이터(Big Data)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AI 활용으로 대체 될 수 있는 직업군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를 몰고 오는 가운데, 목회자들의 AI 활용 여부와 앞으로 목회자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교계와 사회 각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AI를 목회에 활용한다는 목회자들은 챗(Chat) GPT를 47% 정도 목회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런 설교에 대한 신뢰도는 81% 정도라고 나타났다. 이러한 AI의 목회 활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색인처럼 사용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한 도구로 생각

된다. 챗 GPT는 생성형(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AI로 설교의 방향성, 성경 본문, 주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에 맞는 설교문을 효과적으로 생성해 준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은 상당한 설교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남는 시간으로 교인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신앙 상담 등을 할 수 있기에 목회 효율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AI가 작성한 설교문을 그대로 활용하면 내용이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약해 보이고,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단의 데이터에 학습된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

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표절과 특정한 이슈에 대한 편견, 설교 패턴을 반복할 우려, 목회자와 교인들의 소통 단절 등이 설교와 교육에 AI가 활용될 경우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목회의 AI 사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목회 현장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AI에게 맡기고, 영적, 창의적, 감성적, 도덕적인 영역은 목회자들이 맡아 교인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AI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정신적, 감성적, 영적인 면을 따라올 수 없다. 따라서 목회자들의 차원 높은 영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목회영역은 설교 원고 작성, 아이디어 제공, 성경 연구, 기도문 작성 등으로 하고, AI를 목회자

의 비서처럼 그 기능을 기술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I를 통해서 설교문을 작성했을 경우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설교 및 교육자료로 AI 활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교단 차원에서 제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AI를 잘 활용하는 목회자들이 AI를 사용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본다.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자들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여, 보다 차원 높고 정교한 설교문을 작성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평소 신앙의 관점에서 교인들과 사회를 깊이 관찰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교회는 미래지향적인 예언과 통찰력 깊은 설교로 교인들을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목회자를 필요로 한다.



창간

경산한의료병원

원장 유재규

213-505-6747

303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20



창간

지금지금분식

대표 이창록

213-674-7492

3500 W. 6th St. #228
Los Angeles, CA 90020



창간

소반 (한식당)

대표 박영희

323-935-9106

40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장로협의회 “사랑의 찬양제” 감동 선사

선교와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랑의 찬양제’가 큰 감동을 선사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2024년 9월 29일 나성한미교회에서 개최된 사랑의 찬양제는 남가주한인 장로협의회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음악회로서 올해로 제16번째이다.

제1부 예배순서는 남주한인 장로협의회 수석부회장 이득표 장로의 사회로 서경원 장로의 회장 인사와 증경회장 이영수 장로의 기도로 시작하였다. 설교를 맡은 나성한미교회 담임 홍충수 목사는 “기뻐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삼하6:14-15의 말씀을 전하였다.

제2부 찬양제 순서에는 나성한미교회중창단(지휘:이준실, 반주:맹성연)은 ‘거룩한 성’과 ‘The Lord’s Prayer’, 실비치사랑교회(지휘:송정현, 반주:안은순)는 ‘충실하게 하소서’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아리랑여성합창단(지휘:김정민, 반주: 안은순)은 “고향의 봄”과 사랑의 축복, 보블리스선교합창단(지휘:김철이, 반주:김경혜)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오 놀랍고 놀라워라’, LA목사중창단(지휘:서문옥, 반주:김주영)은 ‘The Cornerstone’과 ‘찬양하는 우리’, 미주영성코랄(지휘:오성애, 반주:김주영)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레위성가

단(지휘:강정엽, 반주:홍은혜)은 ‘목마른 사슴이’와 ‘시편51편’, 무궁화 여성합창단(지휘:지경, 반주:정다운)은 성합창단(지휘:지경, 반주:정다운)은 ‘목련화’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외대코랄(지휘:오위영, 반주:김주영)은 ‘For the beauty of the earth’와 ‘선한 능력으로’,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장진영, 반주:윤경미)은 ‘Soon and very soon’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를 각각 연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이준실 지휘와 맹성연 반주로 연합찬양을 함으로써 대미를 장식하였다.

제16회 사랑의 찬양제는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주최하였으며, 후원 단체로는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남가주장로성가단,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남가주교회협의회, 서울메디칼그룹, 한미메디칼그룹, 미주복음방송,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독교보가 동참하였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는 교단을 초월하여 남가주지역 장로들이 연합활동을 통해 선수범하며, 기독교 가치관을 진작시키고 건강한 기독교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고 있다.

감사의 가을 노래

이 가을엔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한 해의 소망이 여문 뒤
그 열매 한 바구니 가득 채워
동네를 돌며 나누고
기쁨에 찬 노래를 합창케 하소서

합창하는 무리 속에 어울려
뜨겁던 태양
거칠던 바람도 기억하며
목 타던 가뭄 끝에
내리시던 빗줄기
축복의 눈물로 쏟게 하소서

넓은 들에 가득한 곡식
나무마다 곱게 영근 열매
가렸던 푸른 치마 벗어 내리고
온 몸으로 하늘을 두르고 선
그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을 바치게 하소서

이윽고 그 푸르던 하늘 내려 앉고
빈 들에 어둠이 쌓일 때
낙엽을 밟고 서서
축복과 감사보다 늦은
회개의 깨달음 고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흰 눈 내린 새벽길
하얀 용단을 밟고
종소리 울리는 교회로
발길 옮기는 꿈 있게 하소서



▲ 석정희 시인



코로나 이후 미국인의 정신건강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시작 되었을 때, '21세기의 흑사병'으로 간주되며 많은 공포를 몰고 왔다. 그 후 백신의 개발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지만, 2020년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질병의 만연과 장기화로 미국인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Red flag)가 켜지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3년여 만에 종식된 것으로 정부 발표가 있었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0년 1월 31일에 내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2023년 5월 11일로 종료하였다.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 동안 감염의 위험과 거리 두기 및 외출 제

한 명령, 비대면 교류의 확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불안, 상실감, 트라우마, 외로움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 위한 정신 건강서비스의 확대와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2021년 공식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한 미국인들의 자살자 수는 48,18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4.1명으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자살자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안 또는 우울장애 증상을 호소한 미국 성인의 비율이 높게는 39.3%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약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인의 정신 건강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책인 '미국구조계획법'을 통해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40억 달러(약 5조 2천억 원)를 선제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작년 예산에 약 270억 달러(약 35조 1천 억 원)를 재량예산으로 편성해서 적극적인 코로나 구제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로 우선, 위기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자살 및 위기 핫라인 번호988을 개설해서 위기대응팀, 위기안정 센터로 이어지는 국가 단위 위기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정신 건강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국인을 지원하기를 실시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삶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재정적인 불안으

로 은퇴계획을 미루고있고, 미국인들 모두 재무 상황 악화, 해고나 실직에 대한 걱정을 해왔다.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가정과 사회에서의 고립감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하여 미국인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눅21:11)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 9.11이나, 2차 세계 대전 중에 느끼는 공포보다 더 심했던 죽음의 전령사와 같은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부른 생태계 파괴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환난의 징조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가꾸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키는데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하겠다.



창간

대한국인기념재단

323-733-7350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CA 90007



창간

미주탈북민협회

대표 전혜정

213-247-3444
505 S. Wilton Pl. #118
Los Angeles, CA 90020



창간

아리랑전통문화알림회

대표 김승윤

213-999-5975

한강 작품의 폭력과 양용 사건의 경찰 폭력

작가 한강이 지난 10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의 소설가로서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오르는 쾌거를 올렸다. 한강의 작품세계는 한국의 처참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인간들에게 가해졌던 엄청난 폭력이 어떻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이를 풀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통 스런 현실이 되는가를 다루고 있다.

‘소년이 온다’에서는 5.18 광주사태에서 권력을 찬탈한 군부세력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발포하고 고문을 가했던 무서운 폭력속에서 희생된 자들과의 고통, 상처를 입은 채로 살아가는 자들의 내면세계를 시적 산문으로 풀어내고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제주 4.3 민주항쟁에서 권력 앞에 희생된 민주투사들과 주민들이 맞닥뜨리는 폭력을 그리고 있다. ‘채식주의자’에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 내에서 폭력으로 스러져가는 한 여성의 반항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강 작품 속에서의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은 역사적 트라우마 속에서 연약한 면을 드러내지만 거기서 나아가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탈출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동체와 개인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 사실들을 똑바로 인식하고 상처를 보듬고 감정을 승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5월 2일 이곳 미국 LA에서 한 정신병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LAPD의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양용씨 사건이 있었다. 한 유색인종 환자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LAPD 경찰 폭력의 잔혹성은 한강 작품의 주제인 폭력에 따르는 트라우마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것은 실제 미국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경찰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연약한 시민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경찰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1위에 꼽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경찰은 마치 라이선스 킬 (License to Kill)을 가진 것처럼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질을

해대고 있는 현실이 참혹하기 그지없다. LAPD 경찰의 폭력 앞에서 한 유색인종 한국인 양용 씨는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했고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다. 환자이송 코드에 의해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으나 DMH 요원은 현장에 도착해서 양용 씨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경찰력 동원을 위해 911에 긴급전화를 했을 뿐이다.

그 후에 들이닥친 9명의 경관들은 양용 씨를 흉기를 소지한 위험한 범죄자로 규정 짓고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DMH 요원이 양용 씨를 설득했어야 했고 경관들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양용 씨를 병원으로 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의사소통의 부재가 폭력을 행사하도록 상황을 몰고 간 것이다.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사회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고를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정신적 폭력이고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억압을 받는 수많은 피해자들도 강제와 협박속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정부의 반대 세력 진압에 따르는 폭력,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도 안전하지 않고 진행되는 가부장적 폭력, 시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 폭력, 개개인의 사고 방식 차이에서 오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력 모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견 일치를 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당한 사회현상인 것이다. 트라우마를 가진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우신 은혜일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거대하고 피비린내 나는 한국의 역사적 비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경찰의 총에 쓰러져간 시민들, 현대사회의 정신적 폭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치유와 자유로운 정신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편집위원 소피아 김>



KEVIN H. JANG

A Law Corporation

대표 케빈장 변호사

213-221-1188

3435 Wilshire Bl. #2300 LA, CA 90010



CHARLES JEONG, CPA

대표 찰스 정 회계사

213-221-4113

3255 Wilshire Bl. #1717 LA, CA 90010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은 하나님께 가을에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제를 올린다는 기념일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 큰 연중 최대의 명절이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식민지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기념하는 행사에 기원을 두고 있다.

영국의 헨리 8세로부터 시작된 영국 성공회의 기독교인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Mayflower)호'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분리파 청교도로서 Pilgrim: 순례자라고도 함)들은 첫해인 1620년에 맞이한 겨울에 매우 큰 시련을 겪었다. 혹독한 추위와 질병, 굶주림으로 102명 중에 절반 가량이 사망했으며, 나머지는 주위에 거주하고 있던 인디언 부족 왓파노아그족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듬해인 1621년 가을, 청교도들은 인디언들로부터 배운 경작법으로 봄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가을에 추수를 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할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 큰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하고자 1621년에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벌인다.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주어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한 인디언들인 왓파노이아그족 90명을 초대하여 추수한 곡식, 과일과 야생 사슴, 칠면조, 호박파이 등을 놓고 축제를 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 여긴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처음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정했고,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국경일로 선포하였다.

이는 'Godey's Lady's Book'의 저자인 사라 사라 요세파 헤일 여사가 링컨 대통령에게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독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941년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1월의

4번째 목요일로 하기로 정하였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근거를 찾아보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력 7월 15일을 '초막절'로 정하시고 7일 동안 지키라고 명하셨다. 나뭇가지로 지은 장막에서 7일을 거한다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모두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명칭이다.(레위기 23:34~43, 신명기 16:13~16, 출애굽기 23:16)

또한 '초막절'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40년간 광야에서 천막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채워 주시고 보호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이며 이때가 가을 추수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토지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감사와 나눔'이다. 우선 목숨을 건지고 미 대륙에 정착하여 기대

이상으로 추수한 곡식을 놓고 청교도인 개척자들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리며 극적인 생존과 정착, 풍요로운 추수의 결실에 대해 감사기도를 올렸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인디언들과의 추수와 풍요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가진 것은 정직밖에 없다. 농장주가 보고 있든 아니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일하고 내일도 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리버사이드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성실하게 일했던 이민 선조들 또한 청교도 이상으로 추수 감사의 기쁨을 나누었을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다. 풍성한 가을 수확으로 평화롭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자! 그리고 주위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은 물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도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소망한다.



창간
한일연구소
소장 김철호
213-713-1234



창간
벤자민건축기술학교
교장 모종태 장로
213-909-2005



창간
K-HISTORY
대표 김환단
213-500-4987
매주 수요일 6pm 역사 강좌

디지털 문화 현상과 문제점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문화는 그 시대의 contents이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려 보면 중세 시대는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이끌었다. 중세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적 영향력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다. 중세 시대의 문화는 음악 뿐만 아니다. 미술, 문학, 건축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 그 시대의 문화 현상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세상인지 보인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문화 현상의 문제이다.

세상이 디지털 문화로 바뀌고 있다. 요즘은 책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즐긴다. 사색적인 것보다는 자극적인 것을 더 좋아한다. 그것도 길이가 긴 것보다 Shorts 형태를 좋아한다. 내가 만든 유튜브 중에서 길고 내용이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보다 1분도 안 되는 Shorts에 관객이 더 많이 몰린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의 문화적 현상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한 번 이해해 보자.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해보자.

성경적 관점에서 한 번 이

해 해보자.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해보자.

혈류증 여인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 38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병에서 나음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병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녀는 '예수에 대한 소문'(막 5:27)을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그녀는 아마 자신이 혈류증 환자라는 것을 숨겼을 것이다. 소문에 들었던 예수님께 다가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더니 혈류증에서 나음을 얻었다.

이것을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해 보자. 그 시대는 어디로 가든지 온통 '예수님 이야기' 뿐이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 현상'이었다. 그러니 38년된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을 따라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 가까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자. 사람들은 문화 현상을 따라 움직인다. 얼마 전에 LA에 '라포엠 (La Poem)'이 왔다. 그리고 '미스 트롯 3'가 왔다. 공연장에는 사람이 메어터졌다. 이것 이 바로 문화 현상이다.

'문화(Culture) 현상?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개인이나 사회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디지털 문화 현상'을 모르면 세상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한때는 일본이 세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옛날 영광만 생각하고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K 문화가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유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기독교도 교회도 디지털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빠르고 편리하고, 보는(Visual) 것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모두 바꾸어야 한다. 교회 프로그램, 설교 등 모두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젊은이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예배나 설교도 online과 offline을 같이 운영해야 한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문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맞추지 않으면 퇴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화적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교회가 그

려야 한다. 현시대에 일어나는 문화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YouTube나 SNS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런 문화 현상이 조작되고 선전 선동에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선전 선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난번 트럼프와 헤리스가 '토론'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토론을 직접 듣지 않고 방송되는 말만 그대로 믿고 헤리스가 잘했다, 트럼프가 잘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한강이란 소설가가 노벨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두 갈래로 의견이 나누어진다. 문학은 창작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무엇을 어떻게 쓰던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읽히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검증되지 못한 지식이 난무한다. 유튜버들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악용 하는데 구독자들은 맹신하는 경우가 많다.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이거나 학술적인 지식들이 진리인 양 난무한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되고 더 확장될 것이다. 점점 더 거짓된 세상에 속아 진리에서 멀어지기 전에 바로 알고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자.

송인TV유튜버
<송인 목사>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의 영향 이야기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노벨문학상 역사 123년에 아시안 여성 작가 최초의 역사이다. 위대한 작가의 탄생이 문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첫째, 책이 불티나게 팔린다. 5일 만에 100만부를 돌파하여 출판업계에 재도약의 발판을 놓았다고 한다. 책을 버리고 이사하는 시대에 나무가 준 종이를 사용하여 자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다는 생각이다. 바라기는 책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가치를 공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둘째, 독서 열풍이 분다. IT 시대에 문학과 인문학에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돈과 경제성 보다는 사람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증대되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에로스 + 필리오케적 사랑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 인지? 가치중심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지혜의 보고로 독서에 관심할 수 있을것인지? 기대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 강국으로 경제성도 담보하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작가에 대한 관심 폭발이 일어났다. 작가 한강은 시인, 가수, 음악인, 종합 예술인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학술대회 개최 제안, 명예박사, 교수, 기념관 제안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그의 의미는 특유의 차분함을 내면의 열정으로 불태우는 모습이다. '도처에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의 시기에 잔치할 수

없다.'는 작가의 아버지가 전하는 수상소감은 아들과 식사하는 일상의 저녁에 맞이한 담담한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나는 작가의 영적 세계이다.

넷째, 작가의 고향과 그 역사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역사 자체가 주는 폭력에 작가의 대담으로의 작품 '소년이 온다.'가 주는 노벨상 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역사 인식의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라는 큰 화 두를 던진다. 작가 한강의 광주와 전라도는 어떤 곳인가? 이제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땅이다. 민주화의 씨앗을 피로 뿌리고 고통으로 뿌렸어도, 그 열매는 빼앗겨 버린 역사와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땅이다.

다섯째, 문학에서의 '한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언어학자 데이빗 해리슨은 6,912종의 언어 중에 한글이 2050년 내에 세계 5대 언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펄벅은 '가장 단순하고 훌륭한 글자'라고 하였으며, 로버트 램지는 '세계의 알파벳' 최종 نام을 언어'라고 했다. 이번 노벨상 수상에는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힘이 컸다고 말한다. 영국 맨부커상을 공동 수상했던 것으로 증명한다. 이제 노벨문학상 작품을 원서로 읽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여섯째, 한국의 성인 문맹률 1위 국가의 불명예가 변화될까? 읽고 쓰고 하는데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성인 문맹



률이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인 까닭은 모든 사실과 사회적 현상을 진영논리와 이념의 강박관념과 확증편향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원인이라 한다. 이 집단적 정신병과 그 폭력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이 노벨문학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일곱째, 노벨상을 꿈꾸는 열망이 저변확대로 이어질 것인가? 문학의 저변확대라는 논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작가의 상을 받은 이유가 자신이 아닌, 자신의 시적 문체나 작품성이 아닌, 문학 선배들의 영향력과 자양분에 대한 감사 표현에 주목하라.

여덟째, 한강이 가진 공감력과 사유력을 공유할 수 있을까? 시적 언어(은유적 메타포)의 구사와 상상력과 영적 세계의 관심이 실제 역사를 서사(기술) 했기에 그는 인류의 삶과 관심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것이다. 이처럼 남을 더 배려하는 공감과 사유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런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홉째, 노벨상 선정 이유의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

서는 동시에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산문, 그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신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 노벨상 수상은 Doing과 Being, 즉 존재와 행 한 일(삶)을 함께 보았다. 국가폭력과 개인 고통의 트라우마에 관심한 저자의 삶까지도 인정하는 상이다.

열 번째, 폭력에 무감각한 정치 사회적 상황에 영향 줄 수 있을까? 국가 또는 사회 혹은 개인의 폭력이 자행되는데 대한 자각과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잃은 사회가 되었다. 양극화로 인한 소외와 차별이 낳은 현 상에 속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보고, 그 해결점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인가? 아니 다룰 수나 있을 것인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 전환의 시기에 한강의 노벨상 수상의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공감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이에게는 폭력이 된다.

〈발행인 김재울 목사〉

도산 Legacy 운동 (도산신보)

도산 Legacy 운동은 미주한인들(Korean Community)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받은 '거룩한 선교이야기'의 사명이다. 매월 '거룩한 사명'의 '도산신보'란에 그의 정신계승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 거짓망국론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 무실역행(참되게 힘써 실천함)

"정직과 성실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 실력양성론/교육입국론

"교육으로 스스로의 실력을 갖추는 때 개인이든 나라이든 스스로 자립한다."

● 대공주의

"공과 사를 가르시오. 공과 사중 한쪽을 굳이 희생해야 된다면, 사를 희생해야 합니다."

"개체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개체를 위하여."

신용 운동

(Credibility Movement)

이민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받은 응답은 '신용쌓기운동'이었다.

이는 '이민사회변화연구소'의 사역이었으며

'세계선교사연합회'의 주력 사역이었던

'생활선교사' 프로그램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신용본위의 '비즈니스'를 행해도 더 잘되는 비전이다.

신용업소(사업체)와 신용인을 선정하여

패 혹은 깃발로 업소에 부착하도록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

개인 개인을 만드는 일이다.

문의 213.559.7500

자동차 기부운동 (Car Donation)



전기자동차(EV)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꾸거나, 폐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증대되는 노인인구에 따라 소유했던 차들을 그만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한 어른들이 많이 있어 도움의 손길이 되고 싶은 것이다.

더 높은 가치는 기금이 마련되면 이 기금으로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기부가 이루어지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드리고, 세금 공제도 가능하다.

문의 213.559.7500

거룩한 선교이야기 청소년 기자단 모집 (HMS Youth Report Club)

2025년 봄학기

고등학생 1기 / 중학생 1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학교, 봉사단체, 커뮤니티, 사회적 이슈 등 자신의 관심 분야 기사를 작성하여,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대시키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 기초를 만들어 드립니다.

작성한 기사나 논평, 칼럼 등은 선별하여 월간 '거룩한 사명'지에 영문으로 게재되며, 웹사이트에는 즉시 올려 시사성을 보장합니다.

수습기자 교육과 저널리즘 강의 등은 전문 교수가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수료증과 기자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대학과도 연계하여 필요한 과목도 미리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문의 213.559.7500